

제1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 아르놀트 츠바이크의 『베르딩 앞에서의 유대인 전수조사』를 중심으로

김희근 (한양대)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유대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열광했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전쟁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인식의 변화 과정이 문학작품 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전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애국심의 입증으로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군부는 팽배한 사회적 불만을 빌미로 삼아 유대인 병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조사가 이루어졌던 해에 츠바이크가 『베르딩 앞에서의 유대인 전수조사』를 썼던 것은 작가의 경악과 분노가 얼마나 컸던 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작품의 의도는 실망과 분노의 표출에만 있지 않았다. 츠바이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을 넘어 미래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려움과 과장된 기대를 성찰했다. 아울러 작품은 과거사 망각의 방지를 위한 기억문화로도 의미가 있다.

주제어: 아르놀트 츠바이크, 제1차 세계대전, 전쟁 열광, 반유대주의, 기억문화

I. 들어가는 말

1914년 8월 황제 빌헬름 2세는 독일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넘어 독일이라는 더 큰 가치 속에서 화합하여 적과 싸워 승리를 거두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황제의 성명은 2등 국민으로 취급받던 유대인들에게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관용과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전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었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20년도).

그러나 자발적으로 입대하고 전선터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면 훌륭한 독일인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현실은 냉담했다. 전쟁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반유대주의가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전쟁 후에는 패배에 대한 사회적 분노의 분출구 찾기에 혈안이 된 독일인들에 의해 유대인들은 희생양이 되었다.

정통 보수파에서부터 전통에 등을 돌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전쟁을 어떻게 수용했고, 이념의 측면에서 입장을 달리했던 유대인들이 전쟁에 어떤 기대를 걸었으며, 주위 세계의 증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은 제1차 세계대전과 유대인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논점들이다.¹⁾ 아르놀트 츠바이크 Arnold Zweig²⁾의 작품 『베르딩 앞에서의 유대인 전수조사 Judenzählung vor Verdun』(1916)는 이러한 논점들을 포괄한다. 전쟁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이 작품은, 전후에 쓰인 레마르크 E. M. Remarque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Im Westen nichts

- 1) 유대계 독일 작가들과 제1차 세계대전의 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논의는 대부분 유대계 작가들을 유대계 지식인 계층에 포함해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의 제시와 시대 상황 분석에 집중되고 있다(연구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것은 Edelmann-Ohler 2015; Brittnacher/Von der Lühe 2016를 참조할 것). 이러한 가운데 유대계 지식인과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서(Sieg 2008)가 발간되어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이제까지 거의 정설로 간주해 왔던 시각, 즉 유대인들이 전쟁을 무조건 수용했다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던 유대인들은 다른 한편으로 반유대주의적 풍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세계평화주의를 주장하거나 폭력에 대한 과격 발언을 멀리하는 편이었다고 주장한다.
- 2) 츠바이크는 1887년 11월 11일 쉐레지엔 지방의 글로가우에서 가죽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학교와 가정에서 유대교의 전통과 역사, 관습을 익힌 그에게 유대교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제였다(Vgl. Bernhard 2004, 41-68). 그는 베를린과 뮌헨 등의 대학에서 독문학, 철학, 심리학을 공부했으며, 1912년 『클라우디아를 둘러싼 이야기들 Novellen um Claudia』로 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는 전쟁에 열광하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전후에는 유대계 잡지사의 편집장으로 활동했으나, 나치의 정권 장악 이후에는 체코, 스위스, 프랑스, 팔레스타인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팔레스타인에서 그는 언어와 경제적 궁핍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및 반아랍 성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그는 시온주의에 등을 돌리고 사회주의 이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결국 15년 동안의 삶을 뒤로하고 1948년 팔레스타인 하이파에서 동독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루카치 G. Lukács에 의해 “발작과 톨스토이의 전통을 잇는 대가”(Zit. nach Kaufmann 2001, 566)로 호평을 받으며 열정적인 사회주의 작가로 변신했다. 츠바이크는 동독 최고인민회의의 위원, 독일 예술 아카데미의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동독 1등 국민훈장, 세계레닌평화상을 받은 유명 지식인이자 유명 작가로서 높은 명망을 누렸다. 1968년 11월 26일 81세의 나이로 사망한 그는 브레히트 B. Brecht와 만 H. Mann이 묻혀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츠바이크는 공산국가에 의해 비호를 받던 작가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서독 사회의 관심 밖 존재였다. 시온주의자, 세계평화주의자, 사회주의자로서 굴곡진 삶을, 또한 모순과 오택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그에 대한 문학적 관심은 독일통일 이후에나 가능했다.

Neues』(1928)에서 찾을 수 있는 전쟁의 참혹함과 허무함을 고발한 반전문학의 의미를 넘어, 전시의 엄격한 검열과 통제 속에서 시대의 문제를 용기 있게 지적하고 비판한 드문 작품 중 하나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논문의 전반부는 나치의 정권 장악 이전 근대 독일 사회의 유대인에 대한 모순적 태도와 유대인의 상황,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쟁 열광과 ‘유대인 전수조사’를 다룰 것이며, 후반부에서는 츠바이크의 작품이 유대인들의 전쟁에 대한 열광과 환멸, 반유대주의 비판, 더 나아가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 모색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는가를 살필 것이다.

II. 제1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II.1. 독일제국 시기 유대인의 상황

20세기 초반의 유대인들은 독일 사회의 편협하고 모순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다, 그리고 타 유럽 국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믿으며 경제적 번영도 보장해주는 국가에 만족한 편이었다.³⁾ 1910년과 1912년 사이에 부호로 등록된 50명의 사업가 중 유대인의 비율은 무려 25%였다. 베를린 시민의 4%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냈던 세금은 베를린시가 거두어들이는 총액의 1/3을 차지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부가 큰 역할을 했다. 교육 역시 신분 상승 가능성을 높일 방안이었다. 제국 내 대학생의 10%가 유대인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Vgl. Sieg 2008, 27). 부를 쌓고 서구 교육을 받은 동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서구 문화에 마음을 크게 사로잡혔다. 특히 레싱, 괴

3) 1812년 3월에 반포된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의 ‘해방칙령 Das Emanzipationsedikt’ 선포는 기독교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유대인이 누리도록 정한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이후 자의식을 갖춘 유대인 대시민 계층이 형성되고 유대인 주도의 학문과 예술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대인의 사회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사법기관 및 공공 행정 분야의 취업에는 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고, 장교 임관은 불허되었으며, 대학에서는 극소수만이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이 시기에 상업, 변호사, 의사, 언론, 문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유대인 인재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던 이유를 공식으로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안 모색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독일은 유대인에게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독일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Vgl. Huck 2004, 49-57).

테, 실러 등으로 대표되는 계몽주의와 고전주의 문학은 동화된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이상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자양분의 역할을 했다. 서구 문화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심적인 끌림 현상은 기독교의 관습과 가치 수용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유대 문화 학술 협회 Verein für Cultur und Wissenschaft der Juden’는 이에 관한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는데, 협회를 주도했던 개혁파 유대인들 Reformjuden은 전통의 가치를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유대교와 서구의 통합을 위해 프로테스탄트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식의 다분히 서구 문화에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동화와 통합이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유대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안에도 독일 사회의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제국 건립 초기부터 문화적, 정치적 이념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반유대주의 Antisemitismus’라는 단어는 언론인 마르 W. Marr에 의해 전파되었다. 신의 살해자, 성체 모독자, 우물에 독을 뿌리는 자, 고리대금업자 등의 로마제국과 중세 시기 이래로 전해져 온 유대인에 대한 편견들에 더해 마르와 동조자들은 새로운 편견들을 생산했다. 이제까지의 편견들이 주로 종교와 문화의 맥락에서 생산되었다고 한다면, 근대 이후에는 정치적 의도가 추가되었다. ‘시온장로의정서 Protokolle der Weisen von Zion’, 즉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모략을 꾸미는 유대인과 같은 반독일적 유대인 이미지 만들기는 그러한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슈퇴커 A. Stoecker와 트라이치케 H. v. Treitschke는 러시아의 박해를 피해 독일로 대거 이주한 동유럽 유대인들을 비난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반유대주의를 활용하여 독일 민족주의 이념을 창출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의도는 여러 연합과 정당의 이념으로 설정되고 현실로 가시화되었다. 단체들은 유대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 달라는 청원을 정부에 제기하고, 선거에서 지지자 확보를 위해 유대인 혐오를 활용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유대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독일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도록 만들었다. 반유대주의는 나치 집권 이전부터 독일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무마하고 세력 간의 결속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면서 독일 민족주의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개발된 것이다.

그런데도 제국 내 유대인들은 유대인 혐오 풍조를 일상적 삶, 즉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회적, 문화적 현실로 보았다. 그들은 주위 세계의 증오가 생존에 더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문명화된 독일이 다시 중세의 암흑시대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유대인들이 경계했던 것은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억

압하는 메커니즘의 부활이었다. 그러한 경우만 아니라면, 증오와 적대는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감내할 만한 것이고, 폭력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방어의 수단으로 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들은 판단했다.

한편 유대인 사회 일각에서는 유대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었다. 1897년 ‘독일 시온주의 연합 Zionistische Vereinigung für Deutschland’ 회의에서 헤르츨 T. Herzl은 시온주의를 대중운동으로 부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호소는 젊은 유대인 세대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부버 M. Buber, 라스커-쉴러 E. Lasker-Schüler, 란다우어 G. Landauer 등은 유대교의 문화적 쇄신을 주장하며 헤르츨의 정치적 시온주의 이념에 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유대교의 르네상스 Renaissance des Judentums’ 운동을 전개한 부버는 전통 예술을 발굴하고 창작을 도모하여 유대교의 본질과 우수성을 유대인 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유대 출판사 Der jüdische Verlag’를 설립한 인물이었다.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유대인 사회에 대한 유대 문화의 우수성 전파에 머물지 않고 독일인들의 관심 제고를 의도했다. 시대 취향에 부응하는 유대 문화 요소들을 알리고 서구 문화와 접목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다.⁵⁾

그런데 독일 유대인들은 전통에 관한 관심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각에 있어 팔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또한 유대인 해방 과정을 통해 거둔 사회적, 정치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맹목적이고 낭만적인 낙관론에 빠져 다가올 대재앙에 대비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성을 갖춘 젊은 유대인 세대에서 두드러졌다. 뒤레뤼스 A. Dreyfus 사건 이후로 지식인의 증가와 영향력 증대는 독일만이 아닌 유럽 전체에 만연된 현상이었다. 사회의 문제 해석 및 해결의 주체 세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지식인은 사회의 발전을 가속하는 추동력이 되었는데, 독일 사회 안에서 교양 개념을 실어 나르는 이러한 주요 세력이 유대인들이 가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사회에 안착하고 교양 계층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점증하는 반유대주의의 풍조에 더해 도덕적 타락과 사회 혼란의 세기말적 몰락상황에 좌절했던 젊은 유대계 지식

- 4) 불변의 외부 상황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대안 모색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자의식 강화로 이어졌다. 더는 전통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서구 사회에도 안착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고통과 좌절의 경험은 문화적, 사회적 근원을 재인식하는, 즉 전통에 관한 관심 촉발의 계기가 되었다.
- 5) 그러나 부버의 유대문화 부흥 운동은 본래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시오니즘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문화 시온주의에 열광했던 젊은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국가 설립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시온주의를 향해 점진적으로 관심을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그들에게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한 시온주의의 이념은 미래를 지향하는 긍정적 이념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인들의 자기 이해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러한 데카당스 세계관으로부터의 출구를 제공했던 것이 보수주의에 대립하는 진보적 자유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이념 등이었다. 하지만 이상사회 건설과 미래의 예측에 있어 드러난 이러한 이념들의 지나친 보편주의와 역사적 일반화는 비현실적이고 허구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II.2. 유대인의 전쟁 열광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을 빌미로 독일제국은 전쟁에 뛰어들었다. 독일인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전쟁을 치르고, 성탄절쯤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했다. 놀라운 것은 사회 비판과 미래 비전의 확보에 힘썼던 상당수의 예술가와 지식인이 전쟁에 열광했다는 점이다. 낭만적 애국심에서 역시 전쟁에 참여했던 츠바이크는 지난날의 오류를 이렇게 고백했다.

하지만 우리, 몇 명의 젊은 여성과 두 명의 젊은 남성 작가는 프랑스와 러시아 민족에 대한 증오심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서구인으로서, 문명인으로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초점은 전쟁에 맞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역사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흐르는 줄로 생각했다(Zweig 1987, 25).

우리는 어떤 것을 불신하도록 교육받지 않았다. 우리는 여름날의 찬란한 푸름에 매혹되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우리 주위의 바로 그것 안에 숨겨져 있는 끔찍한 것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소박한 평화의 느낌이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독일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정신적 자산을, 우리가 배웠고 삶을 영위하는 이유가 되는 가치를 가슴으로 느끼고, 운명으로 여기며, 행복감에 젖도록 만들었다 [...] (Zweig 1987, 26).

유대인들은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들은 민족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독일의 범주에 자신들이 속하느냐의 문제에 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인권을 강조했던 계몽주의자들이 유대인의 사회적,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이래로, 유대인의 해방 및 세속화 과정은 급속도로 전개됐으며, 독일 사회 역시 동화정책을 통해 유대인의 사회 통합을 추진하는 등 유대인의 사회적 지위 인정과 권리 부여는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거리 두기는 20

세기가 되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개종과 개명을 통해 혈통과 문화적 뿌리를 지우면서 서구 사회에 진입했던 유대인들은 전통과 현대성 사이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유대인-독일인의 이중적 정체성으로 고통 받던 유대인들은 틈을 메울 가능성 모색에도 실패했다. 멘델스존 M. Mendelssohn에서 시작하여 부버에 이르기까지 주위 세계와의 조화 모색은 18세기 이래로 중단되지 않았으나,⁶⁾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보다 증대된 전통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긍정적 자기 이해는 세속화가 가속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다. 세대 간 갈등은 심화하고, 종교에 대한 이해, 전통에 관한 내적 확신은 점진적으로 소멸되어 갔다. 부모 세대의 목표가 법적으로 동등한 시민의 권리 보장이었다고 한다면, 젊은 세대는 서구 사회와의 완전한 통합이었다.⁷⁾

전쟁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은 독일 사회의 모순성에서 비롯된 정체성 상실, 그리고 불안정한 자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유럽 사회의 전쟁 도취에는 세기말적 분위기에 지배된 허무주의적, 낭만적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그래서 전쟁은 서구인에게 미래를 앞당기는 최적의 도구이자 대안이었고, 몰락한 구시대를 청산하고 유럽 문명을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도모할 기반이었다고 한다면,⁸⁾ 유대인들에게도 전쟁은 세계의 변화를 위한 방편이었지만, 이에 더해 인종과 문화의 차별을 종식하고 새로운 유대인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인의 국가와 민족 개념에 대한 이해와 유대인의 초국가적, 초민족적 공동체 의식이 본질에서 다르고, 또한 전쟁에 대한 열광이 유대 전통의 가르침에 역행함을 알면서도, 당대의 유대인들은 전쟁에 이처럼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1914년 8월 황제 빌헬름 2세의 ‘성내 평화 연설 Burgfriedensrede’은 유대인들이 염

-
- 6) 당시의 유대 사상가들에게 있어 ‘동화 Assimilation’ 개념은 정체성 상실의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생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대신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두루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적 동화 Akkulturation’라는 개념이 선호되었다.
 - 7) 전통의 재해석을 의도했던 솔렐 G. Scholem과 로젠츠바이크 F. Rosenzweig 조차 부모 세대의 세계관에서 무의미함을 바라보았던 세대에 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구세대에 대한 저항은 기존의 것에 대한 전면 부정이나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종교적, 문화적 뿌리를 더 철저하게 밝혀야 했으며, 젊은 세대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했다.
 - 8) 오랜 시간 동안 서구 사회는 전쟁을 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 보면서 전쟁의 폭력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전쟁의 참혹함과 폐해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 현실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불가피성 내지 인간의 삶과 활동 속에 내재된 나름의 기능에 대해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국가 운영과 정치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하나의 필요악으로 간주하였다.”(서영식 2016, 186)

원하는 현실 변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나는 어떠한 정당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오로지 독일인만 있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Zit. nach Kruse 1993, 23) 정당과 종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가 된 독일인, 하나의 독일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자는 황제의 연설은 유대인들에게 고무적이었다. 연설은 유대인에 대한 차별의 종식으로 확대하여 해석되었다. 유대인들은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고, 독일 민족 공동체에 당당하게 편입될 가능성을 황제의 연설에서 엿본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당시의 유대계 신문들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계 언론이 유럽에서 확산하고 있는 독일에 대한 증오를 반유대주의와 연결했다는 점이다. 유대계 언론은 저명한 랍비들과 유대 철학자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독일인과 유대인이 단결하여 전쟁으로써 반유대주의를 불식하자고 유대인 사회를 선동했다. 랍비에게 있어 전쟁 참여 권유와 선동은 율법 학자 또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영위하는 윤리적 삶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조국을 지키는 것보다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정통 보수 성향의 유대인들조차 전쟁 참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전쟁은 유럽 내 반유대주의 세력의 척결 수단으로서 세속 유대인에서부터 보수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두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Vgl. Zimmermann 2014, 291-301). 전쟁은 유대인을 위한 전쟁으로 더 분명한 의미 부여가 가능했던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쟁은 서구의 영향권 밖에서 가혹한 차별과 박해에 신음하던 동방의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전쟁은 독일 유대인에게는 국가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방편으로, 동시에 동방 유대인들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폭력의 제어 역할을 하는 종교 윤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겠다. 게다가 유대인을 위한 전쟁이라는 확신과 동족에 대한 애정에는 메시아적 분위기마저 배어 있었다. 전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유대교의 미래지향적, 종말론적 대망으로도 전환된 것이다(Vgl. Breuer 1986, 342-348).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당시 특수한 그룹에 속했던, 즉 동화와 통합에 집중하는 유대인 사회에 거리를 두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대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동화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부정하던 시온주의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반유대주의자는 물론 시온주의를 부정하는 유대인의 비난에 예민했다. 전쟁에 거리를 둔다면 극렬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온주의자들의 전쟁에 대한 공

공연한 동조의 입장은 양측으로부터의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온주의자들에게도 전쟁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일 수밖에 없었다. 독일 측에 서서 러시아와 싸우는 것은 시온주의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동방 유대인의 해방 실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독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동방 유대인과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유대인 병사들이 동부전선에서 동방 유대인들을 접촉하면서 유대교의 근원을 되새기고, 한발 더 나아가 전통과 시온주의를 연결 지으며 시온주의를 유효한 이념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그들은 예상했다. 전쟁은 시온주의 이념을 실현할 동력이었던 것이다(Vgl. Zimmermann 2016, 333-349).

II.3. 유대인 전수조사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 역시 불투명해지면서 전쟁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경제와 패배를 거듭하는 전쟁 상황 속에서 독일 사회는 반유대주의의 물결에 휘감겼다. 특히 유대인 병사들이 전쟁을 회피하거나 탈영을 일삼는다는 내용의 투서가 군 사령부에 쇄도했다. 압력에 내몰린 군부는 결국 1916년 10월 11일 유대인 병사를 대상으로 ‘유대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유대인 전수조사는 독일 유대인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Reichmann 1971, 518) 그러나 유대인 탈영병들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이라 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군부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항의는 소극적이었고, 군부는 유대인 사병들이 군 복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참전 유대인 병사의 수는 전쟁 발발 초기에는 5만 명, 이후 5만 명이 추가 징집되어 총 10만 명이었다. 그 수는 당시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의 17%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수였다. 유대인 병사 중 사상자의 수 역시 많았다. 한 유대계 잡지사는 1만 2천 명 이상의 유대인 병사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Vgl. Sieg 2008, 55-85), 독일 사회는 되레 전쟁 패배의 책임을 유대인이 지도록 했다. 힌덴부르크 P. v. Hindenburg의 ‘배후 중상설 Dolchstoßlegende’은 이러한 책임 전가 행태의 전형이다. 베르사유 조약은 유대인 강화조약으로, 바이마르공화국은 유대인 공화국으로, 자본주의·불세비키·민주주의·모더니즘 예술 등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비방 되었다. 바이마르공화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유대인 출신 라테

나우 W. Rathenau가 암살당한 것은 전후 유대인에 대한 혐오의 정점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전쟁 초기 유대인들은 동등한 대우와 인정을 원하며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고, 유대인 연합과 언론은 전쟁 참여를 독려했으며, 유대 회당에서는 황제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그러나 20년 후 생존 병사들은 나치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전쟁 초기 유대인들이 너무 쉽게 애국주의에 빠져들고 전쟁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즉 안일한 현실 인식과 무비판적, 낭만적 애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Ⅲ. 츠바이크의 『베르딩 앞에서의 유대인 전수조사』

Ⅲ.1. 츠바이크의 전쟁에 대한 열광과 환멸

독일제국의 엄격한 통제와 검열 하에서 정치적 사안에 관한 유대계 작가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쟁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문학적 형상화는 대부분 전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전쟁 시기 동안 발표된 츠바이크의 『베르딩 앞에서의 유대인 전수조사』는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작품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이라든지 전수조사에 대한 유대인의 실망과 분노만 담겨있지 않는다. 작품은 피해자의 시각에서 전쟁의 참상과 모순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독일 사회를 고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 및 계몽의 의도도 가지고 있다.

‘유대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던 해에 츠바이크가 용기 있게 『베르딩 앞에서의 유대인 전수조사』를 썼던 것은 작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중대하게 생각했던 가를 짐작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전쟁 초기만 해도 츠바이크는 전쟁예찬론자였다. 1914년에 쓴 편지는 그의 전쟁에 대한 열광과 긍정성 부여의 특징을 잘 알도록 해준다.

평가하는 것을 즐기고, 그래서 존경할만하고 순수한 것을 곳곳에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인 우리는 흔히 앓게 뿔어오르는 행복감에 젖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이기적인 장사꾼, 그리고 입으로만 애국심을 말하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지껄이기 좋아하는 민족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위대하고 용감한 독일 민족으로 거듭났다. 신문을 읽을 때면, 환호를 지르며

벽차오르는 환희로 몸은 진울에 휩싸인다. 위대한 독일이 다시 돌아왔다. 칸트의 직관이 가지고 있는 투명하고 냉혹한 냉정함과 베토벤의 알레그레토와 스케르초 형식의 빠르고 생동감 있는 선율이 불꽃이 되어 독일이 싸우는 곳에서 유령처럼 어른거린다. 유대인인 나는 우리 독일의 운명에 정열을 바칠 것이다. 나만의 유대인 방식으로 독일의 과제를 내 것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유대인이 되는 것을 멈추고 그 이상의 사람이 될 것이다. 기쁨이 커질수록 감정은 깊어지고, 행위로 옮기려는 마음은 더욱 절실해진다(Wenzel 1978, 62).

편지는 무모한 열정과 낭만적 애국심에 도취하여 전쟁을 시대 변화의 동인으로, 또한 유대인 문제의 해법으로 간주하고, 독일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며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는 츠바이크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헝가리에서의 제식 살인 Ritualmord in Ungarn』(1915) 역시 작가의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은 제식 살인 혐의를 두고 벌어진 한 사건을 다루는데, 특이하게도 유대교의 신비주의 사상인 카발라 전통 속에 등장하는 신과 사탄, 또는 천사와 악마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작가가 전통의 이야기에 전쟁 개념을 삽입했다는 점이다. 유대교의 미래는 오직 팔레스타인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다소 우울한 내용으로 작품은 끝나지만, 작가는 독자에게 미래는 낙관적이라는 사실을 작품 내내 암시한다. 사악한 자는 처벌받고 정의로운 자는 승리한다는 식의 권선징악의 모티브가 줄곧 작품을 이끈다. 전쟁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츠바이크는 유대교의 전통과 전쟁을 결합함으로써, 즉 악에 대한 단죄와 정의 회복의 수단으로 전쟁의 폭력성을 미화하면서 지극히 세속적인 전쟁 개념에 종교적 초월성과 더불어 도덕적 당위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유대인 전수조사’는 미몽의 상태에 있던 츠바이크를 깨어나도록 만들었다. 전수조사는 독일 사회가 유대인들의 열정에 공감하지 않고 유대성은 결코 독일성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종래의 편견을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 1917년에 쓴 한 편지에서 츠바이크는 전수조사 이후로 독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좌절과 환멸로 바뀌었다고 다음과 같이 심경을 토로한다.

유대인 전수조사는 독일의 오명과 우리가 겪은 고통에 대해 몹시 슬퍼했던 것에 대한 반사작용이었다 [...] 만일 군부대 안에 반유대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어무리 힘든 근무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수행했을 텐데 [...] 나는 포로로 잡힌 민간인이거나 무국적의 외국인이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Wenzel 1978, 74).

III.2. 반유대주의 비판을 넘어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 모색

1916년 12월에 쓰였고 이듬해 2월 유대계 연극전문잡지 ‘샤우뷔네 Die Schaubühne’에 실린 『베르딩 앞에서의 유대인 전수조사』는 2쪽 반 분량에 불과하지만, ‘유대인 전수조사’에 대한 비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극히 드문 작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는 반유대주의 비판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츠바이크는 반유대주의의 원인과 불합리성을 밝히고 비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작가의 의도는 유대인의 인식 전환이다. 독일 문화공동체는 유대교 문화공동체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 동화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절대화하거나, 또는 독일 문화를 포기할 상황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본질에서 특별한 또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이 작품의 핵심이다. 특히 작품의 결말부는 유대인은 주위 세계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유의미한 것을 만드는 요소로 삼으라고 촉구하는, 즉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악몽을 꾸듯 몽환적 분위기 속에서 작품은 시작한다. ‘베르딩 전선’의 깊은 밤, 막사 앞으로 죽은 듯 쓰러져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화자가 어떤 손에 의해 깨어난다. 손은 구약성경의 에제키엘서에 등장하는 신의 손을 연상시킨다. 에제키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한 사람으로 죽은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후 고향으로 데리고 간 선지자이다. 희망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잠이든 그는 환시 속에서 신의 손에 이끌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된다. “야훼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시자 야훼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끌어내셨다. 그래서 들 한가운데 이끌려 나가보니 거기에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는 것이었다.”(성서번역공동위원회 1977, 에제키엘서 37:1) 마른 뼈들은 죽은 것과 다름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상징한다. 에제키엘에게 신은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강건한 신앙을 견지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러나 이처럼 신과 에제키엘의 대화라든지 희망찬 미래의 비전 제시는 작품 속에 언급되지 않는다. 독자는 주위 세계로부터 적대시되고 전쟁터에서조차 용감한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대인 병사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분노를 성경 내용과 비교하며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작가는 성경에서 모티브를 빌려왔지만, 재구성을 통해 에제키엘서의 교훈인 군센 신앙을 통한 희망찬 미래 비전의 획득을 풍자하고 있다.

패러디는 계속된다. 이번에는 유대인의 전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대천사 아즈라엘이다. 그는 죽음의 천사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날에 나팔을 불어 죽은 사람들을 깨워 일으키는 존재다. 아울러 그에게 부여된 또 다른 임무는 죽은 사람과 태어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는 일이다. 아즈라엘의 이미지는 비교적 명료하게 작품에 반영된다. 대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부활 나팔을 분다. 그가 나팔 소리로 깨우려는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 병사들이다. 잠에서 깨듯 일어난 죽은 유대인 병사들의 모습을 화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티푸스균들이 파먹었고 이질을 앓은 배는 속이 텅 비었다. 총 맞은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머리, 수류탄 때문에 두개골의 반쯤은 사라졌다.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부러진 갈비뼈가 찢긴 군복 사이로 빠져나온 사람, 봉대를 동여맨 병사들, 누더기 차림으로 장화를 신지 않은 병사, 그는 빛을 잃은 탁한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떨궜다. 병사의 이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빛이 느껴졌다. 죽은 사람들은 치욕과 슬픔에 젖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Zweig 1917, 115).

전쟁의 목시록적 상황에 대한 묘사는 부활 나팔 소리로 다시 소생되어 환호를 울리며 천국으로 향하는 유대민족의 전설 속 이미지와 대비된다. 죽음에서 깨어났지만, 병사들의 절망과 분노는 변한 것이 없다. 나팔 소리로 깨어난 그들의 육체도 전쟁으로 훼손된 몰골 그대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 부활이 아니며,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한 서기가 아즈라엘을 대신하여 줄지어 선 유대인 병사들의 이름을 적는다. 한 병사가 질문을 던진다. “아, 왜 자도록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요! 여기 이 땅 위에 편히 팔 뻗고 쉬고 있었던 말이요!”(Zweig 1917, 115) 그러자 서기가 대답한다. “유대인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을 피해 무덤으로 도망쳤는지 통계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요.”(Zweig 1917, 115) 유대인 병사들이 전투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망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유대인 병사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선동에 휘둘려 실시된 ‘유대인 전수조사’가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유대인 병사들이 도망을 쳤다는 비난에 대해 이렇다 할 변명 또는 부정의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서기는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즉 죽음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도망쳤다고 말한다. 서기는 죽어서 조국에 헌신한 유대인 사병들의 희생을 조

롭하고 유대인에 대한 적의를 조장하고 있다. 유대인을 기회주의자로 낙인찍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러한 상상치도 못했던 암울한 현실을 직면하고 죽음에서 깨어난 병사들은 추락하듯 절망에 빠진다. 결국 부활 나팔로 죽은 이들을 소생시킨 것은 전설에서 처럼 영광과 안식의 제공 때문이 아닌, 희생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했던 고통의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었다.

대지가 흐느끼듯 앓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절규하는 고통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위대한 조국, 나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었고, 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오리바람에 죽은 이들의 몸이 흔들렸다 [...] 서기가 말라비틀어진 깃털 펜을 사람들의 손에 쥐여 주었다. 칼에 베인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 액체로 사람들이 히브리어 이름을 적었다. 붉은색으로 작게 쓴 글씨가 정 4각형 모양의 도장처럼 반짝거렸다. 시체들은 서서 진득이 제 차례를 기다렸다. 이름을 쓴 사람들은 몸에 지닌 휘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뒤로 물러나 무리로 돌아갔다(Zweig 1917, 115).

죽은 병사들은 희생으로써 조국에 헌신했음을 입증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과 흘린 피는 가치를 상실했고, 게다가 폐기처분 대상이다. 휘장의 반납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쌓았던 공로와 헌신은 더는 사실로 입증하기 어려워졌다.

츠바이크의 세대에 속하는 동화 유대인들은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체념과 자기 각성을 통해 유대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식하고 문화적 뿌리인 유대 역사와 전통에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 전통보다 동화에 더 무게를 두었고 전쟁으로 미래를 앞당길 것이라 믿었던 그들에게 ‘유대인 전수조사’와 같은 사건들은 역설적으로 자의식을 갖춘 유대 지식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을 새롭게 기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델과 유대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미래 비전의 확보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부버의 ‘유대교의 르네상스’는 바로 그들이 원하는 고유의 모델이자 새로운 의식과 이념을 표현해줄 모범이었다. 부버는 헤르츨의 정치적 시온주의에 맞서서 영토로서의 고향이 아닌 내적 또는 정신적 고향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꿈의 실현을 위해 그는 전통문화의 가치, 즉 과거로부터 유대민족에게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측면의 요소들을 발굴하고자 했다. 그는 유대 예술작품에 내재한 언어적, 사상적, 윤리적 요소들과 그 사례들을 찾고, 현대 유대인의 삶에서 쓰임을 다하게 하여 유대민족의 재탄생을 의도했다. 부버가 의도한 전통 기반의 방향성 모색은 전통으로의 무조건적 회귀가 아니며, 전통 가치의 계승과 창조라는 양면적 특성

이 있는 것이다.

『베르딩 앞에서의 유대인 전수조사』는 이와 같은 미학적 모델에 속할 것이다. 작품은 전통에 대한 담론적 이해를 통해 당대 유대계 지식인들의 고뇌를 반영하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츠바이크는 특히 유대인의 정체성과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문제에 집중했다. 작품으로 돌아가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많은 사람의 이마 위로 십자가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기독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서기가 물어보았다. 유대인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했다. 당신들도 알고 있소.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 유대 신앙을 가진 독일인은 모두 유대인이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며 기지개를 폈다. 그러자 십자가가 서서히 사라졌다(Zweig 1917, 116).

동화를 우선시하면서 종파를 바꾸는 변절행위를 츠바이크가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개종을 감행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면, 츠바이크의 비판을 유대인의 동화 중단 요구로 오해하기 쉽다. 전통과 동화의 관계에 대한 츠바이크의 견해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위 인용문은 그러한 관계에 대한 작가의 확신과 자기 위치 정립의 시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완전한 동화에 걸림돌이 되므로 종교를 바꾸고, 전통을 등졌으며, 정체성을 숨기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유대인의 이러한 행위는 간절하게 희망하던 서구와의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타민족에 대한 동화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었다. 동화 및 통합의 노력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본질과도 상충하지 않는다. 세상에 흩어져 지역 사회에 동화하면서 보편적 인간애를 전파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이다. 다수 사회에 통합되고, 동시에 유대적 정체성을 견지해 나가는, 즉 통합적 정체성의 확립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는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경계 유대인에게는 마땅히 영위해나가야만 할 삶의 형태이자 과제이다.

유대인의 정체성에 이어 츠바이크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을 비판한다. 작품은 죽은 유대인 병사들이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땅속 깊은 곳으로 흘러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죽어서 본향으로의 귀향길에 오른 유대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벽돌이 된다. 이어서 오른

손에는 흙손,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거대한 몸집의 사나이가 등장한다. 그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끝내고 본향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할 일을 상징하는 존재다. 높이 솟은 태양 아래 수염을 기른 그는 담으로 둘러싼 탑을 벽돌로 쌓는 벽돌공이다. 그에게 랍비 아키바 Akiba ben Yosef가 다가온다. 그리고 시온의 딸,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런데 유대 역사를 아는 독자라면 이 약속이 그릇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베타이 체비 Sabbatai Zevi, 바르 코크바 Bar Kochba 등은 유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가짜 메시아를 대표하는 인물들인데, 로마제국에 맞선 항쟁을 이끌던 대장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랍비 아키바이기 때문이다. 더 의미를 확대하자면, 이제 독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현은 시온주의 이념의 실현을, 그리고 아키바의 약속은 시온주의 이념의 실현 불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 나아가 독자는 츠바이크가 메시아 신앙의 일환이고 시온으로의 귀환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기려는 정치적 시온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맹목적인 또는 성급한 메시아주의에 대한 츠바이크의 비판은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더 분명하게 형상화된다. 랍비 아키바는 벽돌공에 이어 이번에는 화자에게 접근해 메시아의 도래에 관해 말한다.

나는 소리쳤다. 오 아키바,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그의 눈이 내 영혼을 살피고 있었다. 로마의 성문 앞에 곱사등이 거지가 앉아 있다네, 바로 그가 메시아시지, 기다리게, 이렇게 그가 말했다. 그 말은 천둥소리가 되어 나를 놀라게 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선생님? 두려움에 떨며 나는 물었다. 바로 너 자신,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다. 엄습하는 두려움에 정신이 번쩍 들고 심장이 요동쳐서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Zweig 1917, 117).

작품 전반부에서처럼 화자는 신의 손에 이끌리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닌, 되레 메시아의 도래에 의문을 품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는 랍비에게 도래할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용기 있게 물어본다. 이에 “바로 너 자신”이라고 아키바는 대답하는데, 여기에서 “너 자신”이라는 단어는 화자와 같은 특정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유대인 공동체 또는 유대인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말하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의 자세를 아키바는 지적하고 있다. 메시아의 도래는 약속된 것이지만,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의 가르침인 것이다.)⁹⁾ 그러나 화자는 가르침을 단순히 따를 것이라는 독자의 기대와 다르게 아키바의 대답에 경악한다. 그가 아키바의 대답에 놀랐던 것은 자신이 메시아로 치칭되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화자는 아키바의 대답에서처럼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맹신하며 무한정 기다리거나, 이와는 반대로 성급하게 앞당기려 하는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이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내재하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다. 메시아 왕국의 실현은 미리 예견될 수 없고, 어떤 것도 메시아의 도래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유대교 본연의 메시아사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

화자의 경악은 츠바이크의 정치적 시온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도 돌려 해석할 수 있다. 시온주의는 곧 독일 문화와 언어에 대한 단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대다수 독일 유대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자의 경악은 전통과 서구 사이에 있는 유대인의 모순적 상황에 대한 자의식의 표출이고, 동시에 다른 존재로서의 자기반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순성과 다름의 인식은 주위 세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베르딩 앞에서의 유대인 전수조사』는 전쟁에 열광했던 동화 유대인으로부터 환멸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의식을 갖춘 유대인으로 변모한 츠바이크가 전수 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부버가 주도한 유대교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써 유대적 정체성과 메시아 대립에 집중하여 미래의 향방을 논했던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¹⁰⁾ ‘유대인 전수조사’에 대한 츠바이크의 비판은 반유대주의의 원인과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그의 비판은 내부로 향했다. 그는 독일 유대교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모순성, 특히 정체성과 메시아 대립 사상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작품의 결말부가 보여주듯 매우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당대의 유대인들이 서구와 유대성 사이에서 삶의 방위를 짚지 못하는 문제, 메시아의 도래를 인위적으로 실현하려는 헤르츨의 정치적 시오니즘에서 드러난 맹점, 아

9) 성경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다. “네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쉬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 만다.”(성서번역공동위원회 1977, 하바킁서 2:3)

10) 이 작품을 츠바이크와 부버의 내적 대화로 분석한 논문이 있다. 논문은 부버의 문화 시온주의를 추종했던 츠바이크가 부버를 가상의 대화 상대자로 설정하여 유대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고 비판한다(Vgl. Battagay 2008 353-364). 그러나 아키바와 화자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듯이, 츠바이크는 전통에 대한 불변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운동을 주도한 부버 식의 전통 개념에 오히려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있다.

올러 메시아 대립에 대한 맹목적 신뢰의 위험성까지 망라하는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이라는 것을 독자는 짐작할 수 있겠다.

IV. 나가는 말

츠바이크가 주목했던 ‘유대인 전수조사’는 국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초유의 사태이고, 애국심과 자발적 헌신으로 불평등이 제거되기를 바랐던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사건이었다. 전수조사가 시행되었던 해에 작품이 쓰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작가의 경악과 분노가 얼마나 컸던 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작품의 의도는 실망과 분노의 표출에만 있지 않았다. 츠바이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을 넘어, 사태의 배경과 원인을 살피고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장된 기대를 성찰했다.

『베르딩 앞에서의 유대인 전수조사』는 과거사 망각 방지를 위한 기억문화로도 의미가 있다. 츠바이크가 제1차 세계대전에 주목했던 것은 이 전쟁이 망각과 왜곡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전후 독일의 극우세력은 영웅주의를 표방하고 전쟁과 폭력의 미화에 앞장섰다. 고대 신화 속 영웅을 방불케 하는 병사의 무용담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거 등장했고, 군사작전은 매우 정밀하게 기술되면서 낭만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전쟁에서 겪은 독일인들의 끔찍한 경험과 전쟁의 실체가 왜곡된 이미지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가려진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 세대의 강요된 침묵은 이후 수십 년간 내적 억압이 되어 집단억식의 저변에만 머물게 되었다.

츠바이크는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가려지고, 심리적 억압의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후 독일 사회에 불행의 씨앗이 된 이러한 전쟁의 체험을 『베르딩 앞에서의 유대인 전수조사』에 이어 『베르딩 앞에서의 교육 Erziehung vor Verdun』(1936)에서 다시 다루었다. 이제까지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독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작품 집필 당시 하이파에 거주하며 나치독일의 발전과정을 주시하던 츠바이크는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몰락상황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의 인식에 이르렀다.¹¹⁾ 억압과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가 망

11) “우리를 굴복시키고, 슈아내고, 멸절시키려는, 저는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시도가 새싹이 트듯 당시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합니다. 독일인 모두의 천박함과 소유욕, 권력

각과 왜곡으로 인해 청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독일 사회의 계몽을 그의 작품은 의도한 것이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Zweig, Arnold(1917): Judenzählung vor Verdun, in: Die Schaubühne, Wochenzeitschrift für Politik, Kunst, Wirtschaft, 13. Jahrgang, Erster Band, 115-117.
- Ders.(1987): Erinnerung an einen 1. August, in: ders.: Essays, Band II: Krieg und Frieden, Frankfurt am Main, 23-28.
- Ders.(1988): Das ostjüdische Antlitz, Wiesbaden.

2차 문헌

- 서영식(2016): 서양 근대의 전쟁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철학논총 86, 167-191.
- 성서번역공동위원회(1977): 공동번역성서.
- Battegay, Caspar(2008): Ende mit Schrecken. Arnold Zweigs Judenzählung vor Verdun als Bild aufgeschobener Identität, in: Weimarer Beiträge 54/3, 353-364.
- Bernhard, Julia(2004): Beobachtungen zu einem Seinskomplex, Arnold Zweigs Positionen im Judentum um 1909, in: Bernhard, Julia / Schlör, Joachim (Hg.): Deutscher, Jude, Europäer. Arnold Zweig und das Judentum, Bern u. a., 41-68.
- Breuer, Mordechai(1986): Jüdische Orthodoxie im deutschen Reich 1871-1918, Frankfurt am Main.
- Brittnacher, Hans Richter / Von der Lühe, Irmela(Hg.)(2016): Kriegstaukel und Pazifismus. Jüdische Intellektuelle im Ersten Weltkrieg, Frankfurt am Main.
- Edelmann-Ohler, Eva(2015): Deutsch-jüdische Literatur und Erster Weltkrieg, in: Horch, Hans Otto (Hg.): Handbuch der deutsch-jüdischen Literatur, Berlin, 151-163.
- Huck, Stephan(2004): Geschichte der Freiheitskriege. Hilfen für die historische Bildung,

육과 비열한 망상을, 그리고 독일의 건전한 것들이 몰락했다는 사실을 저는 보여줄 생각입니다.”(Von Hofe 1984, 38)

- in: Militärgeschichtlichen Forschungsamt, Potsdam.
- Kaufmann, Eva(2001): Entstehung und Wirkung, in: Zweig, Arnold: Erziehung vor Verdun, Berlin, 554-570.
- Kruse, Wolfgang(1993): Krieg und nationale Integration. Eine Neuinterpretation des sozialdemokratischen Burgfriedensschlusses 1914/15, Essen.
- Reichmann, Eva G.(1971): Der Bewusstseinswandel der deutschen Juden, in: Mosse, Werner E.(Hg.): Deutsches Judentum in Krieg und Revolution, 1916-1923, Tübingen, 511-612.
- Sieg, Ulrich(2008): Jüdische Intellektuelle im Ersten Weltkrieg, Kriegserfahrungen, weltanschauliche Debatten und kulturelle Neuentwürfe, Berlin.
- Von Hofe, Harold (Hg.)(1984): Lion Feuchtwanger, Arnold Zweig, Briefwechsel 1933-1958, Leipzig.
- Wenzel, Georg(1978): Arnold Zweig 1887-1968. Werk und Leben in Dokumenten und Bildern mit unveröffentlichten Manuskripten und Briefen aus dem Nachlaß, Berlin, Weimar.
- Zimmermann, Moshe(2014): Judenhass, Zionistenhass, Deutsche, in: David, Irene Ben u.a. (Hg.): Constantin Brunner im Kontext, Ein Intellektueller zwischen Kaiserreich und Exil, München, Wien, 291-301.
- Ders.(2016): Die Kriegsbegeisterung der deutschen Zionisten, in: Brittnacher, Hans Richter / von der Lühe, Irmela (Hg.): Kriegstaumel und Pazifismus. Jüdische Intellektuelle im Ersten Weltkrieg, Frankfurt am Main, 333-349.

Zusammenfassung

Erster Weltkrieg und die Juden– Eine Untersuchung zu Arnold Zweigs *Juden zählung vor Verdun*

KIM, Heegeun (Hanyang Uni)

Das Ziel dieser Studie ist es, die historischen Hintergründe der Begeisterung deutscher Juden für den Ersten Weltkrieg zu untersuchen und zu analysieren, wie sich der Prozess der Veränderung ihres Verständnisses und ihrer Wahrnehmung des Krieges in literarischen Werken widerspiegelte. Die Juden nahmen den Krieg positiv auf und waren optimistisch, dass eine Demonstration des Patriotismus die Ungleichheit verringern würde. Das deutsche Militär nutzte jedoch die weit verbreitete soziale Unzufriedenheit als Vorwand, um eine umfassende Untersuchung jüdischer Soldaten durchzuführen. Es war ein Ereignis, das das Vertrauen des jüdischen Volkes in den Staat unmittelbar zerstörte. Dass Zweig im Untersuchungsjahr *Juden zählung vor Verdun* schrieb, zeigt das Ausmaß der Verwunderung und Wut des Autors. Die Intention des Werks ist jedoch nicht nur, Enttäuschung und Wut auszudrücken. Jenseits der Dichotomie von Tätern und Opfern reflektierte Zweig die Ängste und überzogene Erwartungen an die Zukunft der Juden. Darüber hinaus ist der Text auch als exemplarisches Werk der Erinnerungskultur sinnvoll, um das Vergessen der Vergangenheit zu verhindern.

Keyword	Arnold Zweig	Erster Weltkrieg	Kriegsbegeisterung	Antisemitismus	Erinnerungskultur
---------	--------------	------------------	--------------------	----------------	-------------------

- 필자 E-Mail: pius2108@hanyang.ac.kr 교수
- 투고일: 2022년 7월 6일 / 심사일: 2022년 7월 6일 /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1일